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7>



####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중엔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의 학식은 너무나 심오하여 부처님의 대상이 되지만 그의 행동은 탐욕에 열목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절한 언행을 하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요컨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바른 실천이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것이다.

<법구비유경>의 '술전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 반특(儼特)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많은 아라한들을 시켜 날마다 가르쳤으나 1년 동안에 계승 하나도 외우지 못하였다. 그의 머리 나쁜은 4부대중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를 가엾게 여겨 몸소 한 구의 계승을 가르쳐 주셨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몸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실천하는 자는 이 세상을 잘 지낼 수 있다."

그 때 반특은 부처님의 보살핌에 감동되어 그 계승을 그대로 외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나이 늙어서야 겨우 계승 하나를 외

무슨 인연으로 도를 얻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많이 배워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특은 겨우 한 계승의 이치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고요해지고 깨끗해져서 마치 손금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면 한낱 정신만 해치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동이 착하지 아니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 항상 부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모두 듣고 익히하였다. 그렇지만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아라한이 되지 못하였다. 부처님의 입멸 직후에 아라한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아난다는 이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알고 기억할 수 있었지만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난다는 불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몸소 실천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어 결집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 많은 경전 외워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 없어 단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해야

웠을 뿐이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 그리 신기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 그 이치를 해설할 것이니 주의해서 잘 들어라." 반특은 분부대로 경청하였고, 부처님께서서는 그를 위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살생, 투도, 사음)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행위(악구, 양설, 기어, 망어)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탐욕, 분노, 사견)에 대한 것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관촬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자 반특은 그 마음이 밝아져서 곧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뒷날 바사니왕은 부처님과 대중을 왕궁에 초청하였다. 문지기가 반특을 알아보고 막아서서 말하였다. "그대는 사문으로서 한 구의 계승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초청에 응하려고 하는가? 나는 속인인데도 오히려 계승을 아는데, 아무런 지혜도 없는 그대에게는 보시한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반특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알고 왕에게 반특이 아라한임을 말했다. 왕은 곧 반특을 청해 들이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반특은 본래 성품이 우둔하여 겨우 계승 하나를 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말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 한 마디의 법을 듣고서 온갖 악한 생각 멸함만 못하다. 비록 천 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 무슨 이익 있으리. 단 하나의 이치라도 듣고 실천하여 해탈하느니만 못하느니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이익 있으리. 단 한 구의 법 구절이라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여 도를 얻음만 못하느니라."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방종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다. 마치 목동이 다른 사람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다. 남의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는 것이 목동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의 경전을 외울지라도 탐욕, 분노, 사견을 없앨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평하듯이 이 경전 저 경전을 대하지 말고 자신의 근기에 가장 잘 맞는 붓다의 말씀을 새겨 몸과 마음이 나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머리 나쁘다고 핑계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 무구스님

(본원종 부종정)

벌 파사툼년 2월 7일, 양평 강상면에 위치한 양자선은 군데군데 남은 눈으로 한껏 빛을 발했다. 곧자암으로 향하던 길머리를 돌려 양자산 방향으로 4km를 들어가서야 불사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서림사를 찾을 수 있었다.

본원종 부종정 무구 스님은 30년을 넘게 수행처로 삼았던 과천 유덕사를 떠나 지난해 12월 이 곳 양평군 강상면 송화3리에 새 도량을 일궜다. 소박한 촌로의 모습으로 기자들을 맞은 스님은 일백만 하라며 맞절을 했다.

"스님, 정든 수행처를 떠나 이 곳에 새 수행처를 마련했으니 마음자리도 새로워지셨어요."

"마음은 매양 한자리인데 새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순간순간 흔들릴 마음이면 70년 넘는 시간 동안 법안 축년 거지요. 새 것이라는 것도 다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새 것이랄 게 없거든요. 뭐가 새 것입니까? 서림사가 자리잡은 땅도, 터를 다진 돌도, 그 위에 올린 나무도 모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새 것은 자네 마음 속에 분별심으로 있을 따름입니다."

무구 스님은 그랬다. 평생을 이 곳 저 곳에서 부처님 도량 일구면서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아무 사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일교에

### 순간순간 찾아드는

### 술한 번뇌망상 펼쳐낼때

### 비로소 수행 시작

서도 육식 없는 스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사람들이 요즘 생활을 묻곤 하지만 딱히 해줄 말이 없거든요. 잠으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잠이 안오면 열불합니다. 참선 하듯이 앉아서 열불하고 큰 소리로 열불하고 생각으로 열불하면서 살고 있어요."

큰 스승이 없다는 불평에 대해서도 무구 스님은 따듯하게 일침한다. "공부 안 한 사람 보기에는 큰 스승이 없어보일지 몰라도 전국 곳곳에 스승이 참 많아요. 제 공부 안했다는 소리 없고 찾아다니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소리 하기 전에 하심을 먼저 실천하세요. 집에서 하심을 안하니 세상이 어지러운 것 아니겠어요? 집집안에 내려

# 자나깨나 마음이



"공부 안한 사람 보기에는 큰 스승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전국 곳곳에 스승이 참 많아요" 무구 스님은 하심을 먼저 실천하면 만나는 사람 모두 스승이라고 말한다.

오는 하심하라는 가르침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라 기 몹이 땅가집니다. 맨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즐기만 하니 소화도 안되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런 제대로 된 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자기 몸뚱어리 하나쯤은 요리할 수 있어지오. 참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데 자꾸 참선만 할려고 하니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선을 해야만 수행하는 거라는 망상에 빠져 맨날 헛다 리 잡고 사는 거예요."

"내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선방에 다닐 때 일어나가 참 오래 됐네요. 선방에 있는 수좌라고 다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 하는 수좌가 있는가 하면, 풀다가 한 찰을 나는 수좌

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수행을 제대로 안하면 자기 몹이 땅가집니다. 맨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즐기만 하니 소화도 안되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런 제대로 된 선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자기 몸뚱어리 하나쯤은 요리할 수 있어지오. 참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데 자꾸 참선만 할려고 하니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선을 해야만 수행하는 거라는 망상에 빠져 맨날 헛다 리 잡고 사는 거예요."

스님은 평소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삼원사 선방에서는 화두 들고

## 육법등 (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전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리번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 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온 속으로 이끌어 준다.
-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 가진 것은 일게 되고 베풀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폐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 동작, 36장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 전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체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자격 : 교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공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음이

# 하나로 통해야 깨닫는다



무구 스님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 잇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 언제 어느때고 하라 세속생활엔 염불이 최적 두터운 업장도 절로 녹아

치열하게 옹호정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무구 스님은 결국 염불선을 택했다. "요즘 한국불교에 선불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한국불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참선이란 염불이든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골라야 해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무조건 선을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참선하는 스님들 대부분이 염불하면 부처가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염불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국불교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에요. 또 우리 근기에 가장 맞는 수행이 바로 염불입니다. 역대 어

떤 조사 스님도 염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참선을 해도 마음이 일여가 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고, 염불도 입으로만 해서선 안됩니다. 오매일(愚寐一如)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깨달음이 오지."

스님은 오로지 하나로 통해야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순간순간 찾아드는 슬픈 번뇌망상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스님은 번뇌망상을 거저 속에 가려진 별래도 고약한 냄새라고 했다.

"날 좋은 여름날 마당에 거적을 깔아놓고 잘 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적을 깔아놓을 줄만 알았지 걸을 생각은 안하거든요. 장마비가 쏟아져도 가만히 놔두던 말이예요. 나중에 거저 밭을 들춰보면 온갖 별래가 자라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이와 똑같아요. 거적을 쇠워놓으니까 자꾸 별래와 냄새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태안을 비추면 별래도 없애지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태안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태양보다 강해서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도 염불을 하면 번뇌망상이 사그라 듭니다."

무구 스님은 수행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불자들의 수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거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염불 수행을 권한다.

"세속생활에서 어디 수행이란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수행이 그리 쉬우면 다 부처님 됐지요. 하지만 수행에만 매달릴 수 없는 세속과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빠르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성(高聲)염불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묵념(默念)염불을 해 보세요. 염불을 하면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되면 그만큼 세상이 정정하고 우주가 정화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망상이 꿈틀거리려 여유를 주지 말고 삼매에 빠질 때까지 염불을 하세요. 수행이란 것이 장소와 시간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참선 하듯이 염불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삼매에 들 수 있고 오온이 저절로 염불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고 잇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무구 스님. 수행하는데 승속이 따로 있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지 염불할 수 있어야 번뇌망상도 따라붙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덧붙인다. "누구든지 염불하라고 하면 '내 스승인 겁네' 하고 염불하세요. 그러면 크라이 가가워집니다."

염불=백병염 기사·사건=백채원 기자



#### ■ 무구 스님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17세 되던 46년 김천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김용사에서 전문강원을 마치고 오대산 상원사, 육진 불영사, 문경 대승사 등지에서 20년간을 선반했다. 이후에는 신홍사 주지, 원주 죽림사 주지 등을 지냈다. 그러나 60년대 정화의 뜻이 변질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계종을 떠났다.

89년 태허 스님 등과 정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본원종을 창종해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본원종 부주장으로 양평 서림사에서 염불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 무구 스님의 건강법 체증·감기 등 간단한 병 호흡으로 치료

무구 스님은 76세의 세남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잔병치레 또한 거의 하지 않는다. 이의 비결은 선방을 다닐 때 얻은 의학 지식에 있다.

모든 대중에게 각자 소임이 주어지는 선방 생활에서 무구 스님은 주로 간병 소임을 맡았다. 변변한 약을 구할 수 없었던 당시, 의지할 데가 없는 의학자였었다.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약을 짓고 간병했던 것이다. 덕분에 스님은 해박한 의학지식을 갖춘 '한의'로 불렸다. 무구 스님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건강법을 익히게 됐다.

"옛날에는 선방 한구석에 쪼름쪼름 매달아 두었어요. 결체혈에 자리에 누는 스님이 생기면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한 거였지요. 마음을 쓸 때는 물에 불린 쌀을 들로 같이 물에 씻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있다면 맛방을 넣고 잘 저어 풀이면 맛있는 마음이 되지요. 이 미음 한번 먹어보겠다고 대중들이 아تان이였거든요."

선방에서의 치료법을 묻자 스님은 선방에 전해오던 몇가지 치료법을 들려준다. 주로 호흡으로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선방에는 채하는 대중이 많습니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니 그럴만 하지요. 이 때는 입을 꼬옥 다물고 배가 부르도록 들이마신 뒤 서서히 입으로 숨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30분 정도만 하면 음식이 소화 가 다 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채하면 습기가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 몸이 차가워집니다. 들이마신 숨을 오랫동안 뱉속에 두면서 양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따뜻한 선방에 앉아 있던 수좌는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거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걸리기 쉽습니니다. 감기는 더운 열 기운이니까 냉기를 보완해야 하지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열기운도 있고 냉기운도 있거든요. 열기운은 내뿜고 찬기운만 몸에 쌓으면 됩니다. 방법은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가 '하' 하고 순간 내뿜으면 더운 기운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감기 기운은 사라진답니다."

그러나 무구 스님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일러준다.

"만병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오래 살아야겠다는 것도 탐욕이고 망상이요. 탐욕은 마음의 병이지만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할거지."



#### 진각 스님의

### 스님이야기

#### 해암 스님(2)

하루는 해암 스님께서 아침 공양을 하고난 뒤 대중 모두를 연화실로 모이도록 했다. 마침 동안 거를 해제한 뒤라서 사형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 대중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는 일도 많아 할 터인데 그렇기 않았다. 공양할 때에는 대중들이 꼭 차는데 마당 청소나 율령할 때에는 기척도 없으니 스님께서 상좌들의 나태함을 깨우쳐 주고, 매사를 대중공사라는 철집안의 전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기 위해 모이라고 한 것이다.

원당암에 해암 스님께서 주석하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스님이 지리산 도솔암에서 해인사로 오시지 않았다가 당시 해인총림 방장인 선철 스님께서 해암 스님에게 선방 소임을 맡기면서 원당암을 배려하셨다. 그때도 스님은 상좌들과



그림·문병성

의논 끝에 원당암을 맡으셨는데, 상좌들이 원당암을 잘 가꾸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음을 피우니 스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대중공사에서 스님은 한마디로 단언하셨다. 공언히 철집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죄만 키우지 말고 아예 원당암을 관리 잘 할 스님에게 맡기자는 말씀이었다.

그때의 원당암은 마당 여기저기에 풀이 솟아 있었으며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암자 운영을 했다. 그러나 스님 눈에는 날이면 날마다 이해야 할 것이 날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 눈에는 무심하게 지나칠 일이지만 스님에게는 하루종일 일거리를 했다.

스님께서는 피아범이 내리찍는 삼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밀집모자를 눌러 쓰고 호미로 도랑의 풀은 모조리 뽑으셨다.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상좌들이 안개 해제했다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계음을 피우면 원당암은 사중에 넘기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니, 어느 상좌도 토를 달 수 없도록 모범을 보이셨다. 원당암에 오면 일을 하든지 아니든 오지

말든지 해야 했다. 하지만 스님을 모시고 살아보니 단신께서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시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지까지 하면서 주중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시는데 시봉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배려해 주셨다.

원당암은 지금도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처로 유명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해암 스님께서 직접 죽비를 들고 경책을 해주며 수행을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매달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은 신도들에게 개방해서 스님께서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법문을 해 주셨다.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날은 대부분 쉬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했다고 하셨다. 단신께서 직접 철야정진을 하시면서 죽비로 경책까지 해주니 신도들의 신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해암 스님생활이 뜬 베지않은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말 그

### 평생 일종식·장좌불와 실천 계름 피우면 절 떠나라 혼쭐

대로 죽을 지경이었다. 최소한 졸지는 말아야지 하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지면서 고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떨어지는데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해암 스님은 하루에 한번만 공양하는 일종식을 하면서도 늘지 않는 장좌불와를 평생 동안 하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존경스러웠다.

처음 오는 신도들에게는 화두를 주시는데 만 원석을 직접 받고 화두를 내려주신다. 스님들이 내게까지 와서, 큰스님이 화두를 던받고 파신다 그 뒷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큰스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화두를 너무 쉽게 생각해 공부할 안하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선을 어떻게든 생활화 시키려는 큰스님의 뜻이 예뻐하게 느껴진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일주일 동안 상좌들과 단식을 하며 옹호정진을 할 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너무나 배가 고향던 젊은 수좌가 물레 떡을 먹다가 털이 났다. 스님은 단식으로 털이 났으면 단식으로 고쳐야 된다면 함께 공부하는 대중에게서 일주일간 단식 옹호정진할 것을 권했다. 물레 떡을 먹었던 수좌가 화복할 때까지 단식도 함께 단식 정진하고 나서는 조용히 타일렀다.

그 수좌는 단식약속을 어긴 것을 스님에게 꾸중들을까 싶어서 장에 출혈이 있는데도 말을 못 했는데, 스님이 그것을 아시고 대중들이 함께 해야만 그 수좌도 무사히 회복되고 옹호정진도 마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었다.

■ 구례 수미정사 주지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들』

**가롱빈가**

약 1300mm

91550mm

종 25관

※ **법당에 가롱빈가를 설치하십시오...**

- ◆ 법문을 할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 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롱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 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동경 및 방탄 테이프, 명상기오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롱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시계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 제품으로 범종시계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본원)재 원무직

● **문의(1\*) : (주)비엔비기업**  
032-772-5451(대)  
02-733-6141(대)

● **재 품 명 : 가롱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인 음원(동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방고 음향있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로 영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면인 명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영적출력 15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음악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동경 40여분 정칙,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

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티종 기능(티종 빛수 조절 기능) - 일람기능 (3분 작동 기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DC24V (3A-5A 10), 마이크로 영프스피커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지므로 본틀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중재직업제 :** 성종사
- **전자종물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1. 초도지급 300만원 개설기부 2. 무점포 창업기부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은 우대

**www.bellkorean.com**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조 • 경사조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무전구, 인피전구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일라멘트 6배(특 일라멘트)로 빛이 율동이 밝고 열전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조**

- ▶ 경사조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소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쟁) 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간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조**

DWS2000 LED조 • DWS1000 LED조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6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